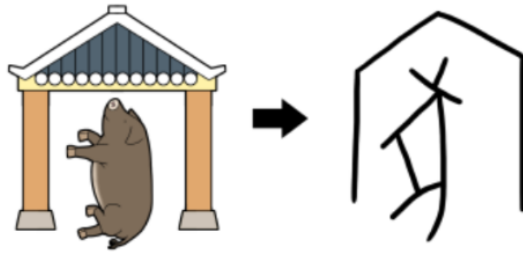


7(2)
-
1

회의문자 ①



家

집 가

家자는 '집'이나 '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家자는 宀(집 면)자와 豕(돼지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예로부터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은 집안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그러니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곁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돼지우리를 반지하에 두고 그 위로는 사람이 함께 사는 특이한 구조의 집을 지었었다.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은 집안에 돼지를 기르고 있다. 家자는 그러한 가옥의 형태가 반영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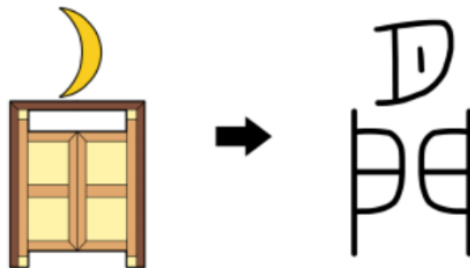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2

회의문자 ①



間

사이 간

間자는 '사이'나 '틈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間자는 門(문 문)자와 日(해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과 소전에서는 月(달 월)자가 들어간 閒(틈 한)자가 '틈새'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間자는 어두운 밤 문틈으로 달빛이 비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어두운 밤에야 달 빛을 통해 문틈이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니 間자가 '틈새'라는 뜻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후에 閒자가 시간에 틈이 있다는 의미에서 '한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해서에서는 間자가 만들어지면서 '틈새'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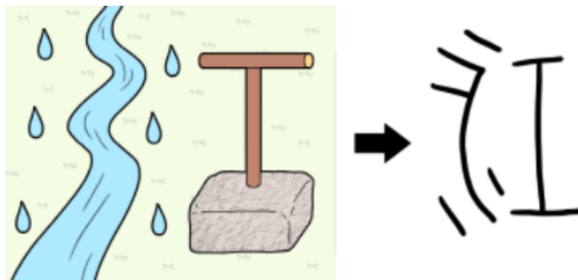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3

회의문자 ①



江

강 강

江자는 '강'이나 '양쯔강'을 뜻하는 글자로, 水(물 수)자와 工(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던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범람하는 강을 다스리기 위해 독을 쌓는 치수(治水) 사업을 했었다. 그러니 江자에 쓰인 工자는 흙을 높이 쌓아 물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江자는 본래 양쯔강으로도 불리는 중국의 장강(長江)을 지칭하던 글자였다. 예를 들면 중국 <상서(尙書)>에서는 민산도강(岷山導江)이라 하여 민산(岷山)에서부터 양쯔강(江)까지 물길을 잘 다스렸던 우 임금의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江자는 '양쯔강'을 이르던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江자는 큰 하류를 통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江

금문

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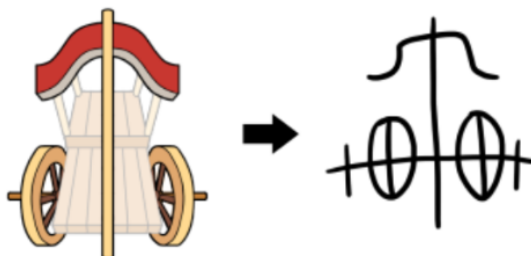
소전

江

해서

7(2)
-
4

상형문자 ①



車

수레
거
수레 차

車자는 '수레'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참고로 車자에는 '차'와 '거'라는 두 가지 발음이 있다. 車자는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다니던 '수레'를 그린 것이다. 수레는 무거운 짐이나 사람을 쉽게 이동하게끔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갑골문에 나온 車자를 보면 당시의 수레가 잘 묘사되어 있었다. 갑골문에서는 양쪽에 큰 바퀴와 상단에는 차양막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후에 한자가 세로로 쓰이게 되면서 양쪽에 있던 수레바퀴는 단순히 획으로 그어졌고 짐이나 사람을 싣던 곳은 田자로 車 표현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車자는 수레를 세로로 그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車자는 수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수레'나 '전차'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車

갑골문

車

금문

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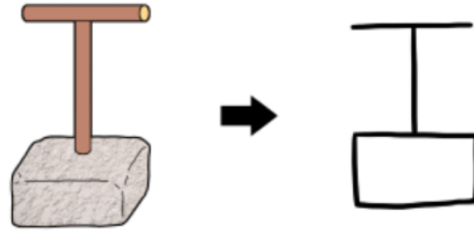
소전

車

해서

상형문자 ①

7(2)
-
5



工

장인 공

공자는 '장인'이나 '일', '숨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자는 땅을 다질 때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성(城)벽을 쌓을 때 '달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흙을 다졌다. 달구는 막대기에 무거운 돌을 끼워 만든 것으로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지금도 중국의 일부 농촌에서는 나무판 사이에 흙을 넣어 달구를 내리치는 방식으로 흙벽을 쌓는다. 이렇게 진흙을 다져서 쌓아나가는 방식을 판축법(版築法)이라 한다. 고대의 성벽도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었다. 공자는 달구를 그린 것이지만 도구를 잘 다룬다 하여 '장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가 부수로 쓰이는 글자들은 대부분이 작업이나 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𠂇

갑골문

工

금문

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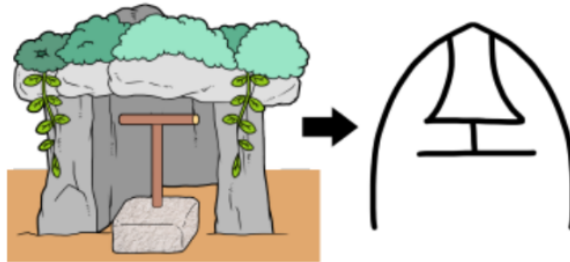
소전

工

해서

회의문자 ①

7(2)
-
6



空

빌 공

공자는 '비다'나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공자는 穴(구멍 혈)자와 工(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공자는 흙을 다지는 도구인 달구를 그린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달구를 그린 공자에 穴자를 결합한 것으로 흙을 다져 구멍을 만들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도구(工)로 구멍(穴)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공간'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비다'나 '구멍'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태에 비유해 '공허하다'나 '헛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𠂇

금문

空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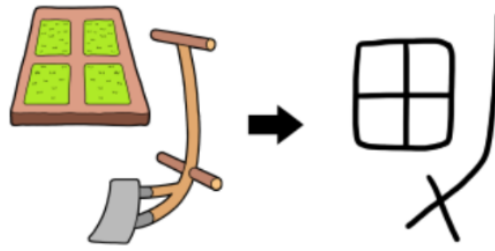
空

해서

<div>7(2)</div> <div>-</div> <div>7</div>	<div>상형문자 ①</div> <div>  </div>				
<div>氣</div> <div>기운 기</div>	<p>氣자는 '기운'이나 '기세', '날씨'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氣자는 气(기운 기)자와 米(쌀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氣자는 米자가 없는 气자가 먼저 쓰였었다. 气자는 하늘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이나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획을 세 번 그린 것으로 하늘의 기운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숫자 三(석 삼)자 혼동되어 위아래의 획을 구부린 형태로 변형되었다. 여기에 米자가 더해진 氣자는 밥을 지을 때 나는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气자와 마찬가지로 '기운'이나 '기세', '날씨'와 관련된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p>				
	<table> <tr> <td data-bbox="260 819 833 1025">  </td><td data-bbox="833 819 1402 1025">  </td></tr> <tr> <td data-bbox="260 1025 833 1111">소전</td><td data-bbox="833 1025 1402 1111">해서</td></tr> </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div>7(2)</div> <div>-</div> <div>8</div>	<div>회의문자 ①</div> <div>  </div>				
<div>記</div> <div>기록할 기</div>	<p>記자는 '기록하다'나 '외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記자는 言(말씀 언)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己자는 줄을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나 '자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외우거나 기억하는 행위는 어떠한 말이나 사건을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記자는 '말(言)을 나(己)의 머릿속에 보관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記자는 말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기록하다', '적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p>				
	<table> <tr> <td data-bbox="260 1783 833 1989">  </td><td data-bbox="833 1783 1402 1989">  </td></tr> <tr> <td data-bbox="260 1989 833 2096">소전</td><td data-bbox="833 1989 1402 2096">해서</td></tr> </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7(2)
-
9

회의문자 ①



男

사내 남

男자는 '남자'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男자는 田(밭 전)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力자는 밭을 가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힘'이나 '힘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쟁기'를 그린 力자에 田자가 결합한 男자는 밭과 쟁기를 함께 그린 것이다.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고대의 농사일은 모두 남성의 몫이었다. 男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힘을 들여 농사를 짓던 사람인 '남자'를 뜻하고 있다.

男

갑골문

男

금문

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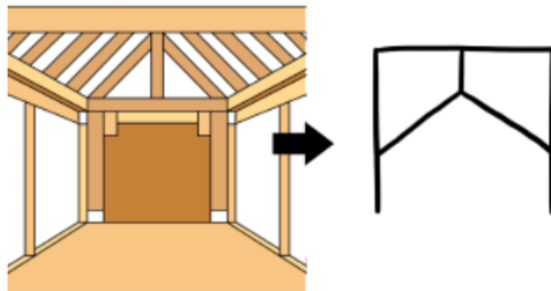
소전

男

해서

7(2)
-
10

회의문자 ①



內

안 내

內자는 '안'이나 '속', '대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內자는 門(멀 경)자와 入(들 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門자는 '멀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內자의 갑골문을 보면 門자 안으로 入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전통가옥의 내부를 그린 것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공'과 양쪽을 지지하고 있는 '도리'가 표현되었다. 內자는 이렇게 가옥의 내부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안'이나 '속'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內

갑골문

內

금문

內

소전

內

해서